



미 증시, 기술주 중심의 급락 충격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10 일(월) 미국 증시는 시카고 연은 총재의 완화적 발언에도, 12 일(수) 소비자물가 지표를 둘러싼 경계심리 속 애플(-2.6%), 테슬라(-6.4%), 페이스북(-4.1%) 등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하락 마감(다우 -0.1%, S&P500 -1.0%, 나스닥 -2.6%). 산업재(+0.1%), 에너지(-0.1%) 등 경기 민감주들은 선방한 반면, 기술(-2.5%), 커뮤니케이션(-1.9%) 등 언택트, 성장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순환매 장세는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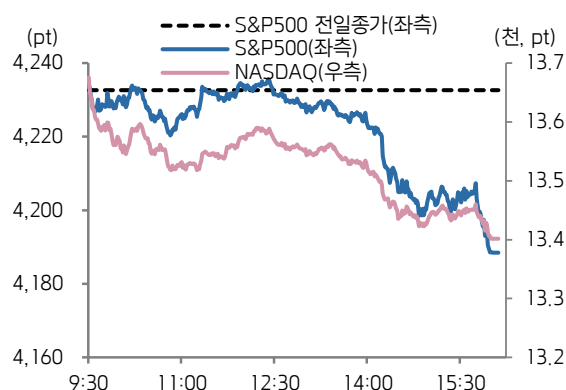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4 월 고용 쇼크는 이례적인 현상이었으며 올해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또한 임금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며, 2.5%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 그러나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2013 년 9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중심에 있는 상황.

미국 증시 평가

지난주 금요일 고용 쇼크로 인해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기술주들은 반등하기도 함. 그러나 고용 부진은 일자리 복귀 지연, 반도체 공급 부족 등에서 기인한 일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고용시장이 탄력적인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재차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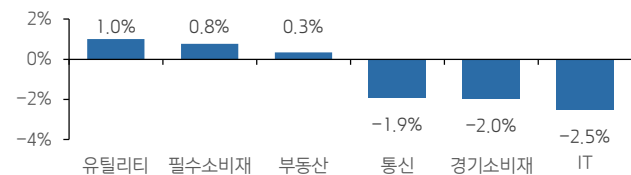
이처럼 경제 정상화 가속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그에 따른 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금리 변화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 또한 언택트, 기술주를 대거 편입하면서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ARK invest 의 ARKK ETF(-5.2%)가 고점대비 30%이상 급락한 충격도 존재. 해당 ETF 의 성과부진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5 월 이후 현재까지 약 11 억달러 유출 추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기술주들 사이에서 ARKK 발 패시브 수급 불안을 초래했던 것으로 판단.

S&P500 일종 차트(5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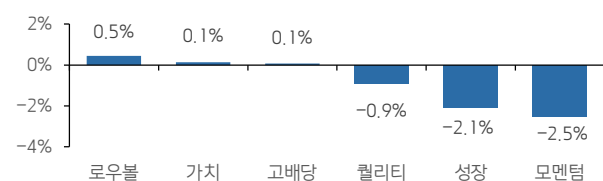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79% 하락. EUREX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0.61%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6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6.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약 3.0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미국 기술주 급락 사태로 인한 국내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주가 부담은 다소 존재하나, 경기민감주들로의 순환매 자금 추가 유입 여부 3. 미국발 악재 속 금일 상장인 SK IET의 상장 흥행 여부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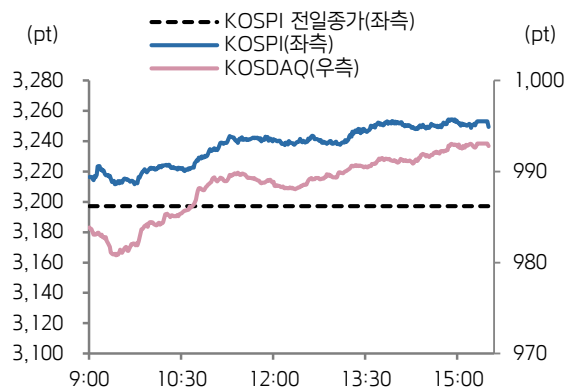
10일(월)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발 혼풍(4월 고용 쇼크에 따른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 불안감 해소)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가운데, 장 중반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경기 민감주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코스피 +1.6%, 코스닥 +1.5%). 경기민감주 이외에도 거래대금 증가에서 기인한 증권주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했으며, 공매도 불안 우려 완화 속 코로나 치료제 수출 계약 발표에서 기인한 셀트리온(+3.2%) 등 제약, 바이오와 같은 고밸류에이션 주식들도 급등세를 시현.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사상최고치 경신에 따른 단기 부담감 속 미국 기술주 급락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국내에도 인플레이션 급등 경계심리가 상존하는 만큼, 고 밸류에이션 성장주들을 둘러싼 매도 압력이 장중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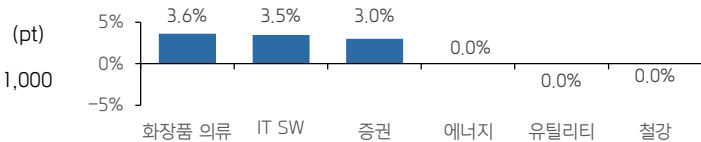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이 유효한 경기민감주들로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될지 여부도 금일 시장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판단. 또한 미국 기술주 급락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연초 이후 가격 조정을 받아왔던 성장주 성격이 내재된 국내 반도체, 자동차, 2 차전지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도 주목해볼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5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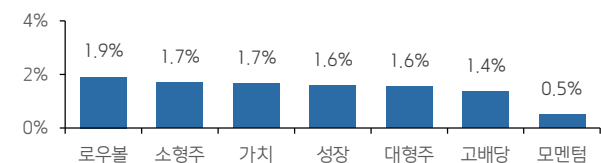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0일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5월 1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